

지역 매 아리

사랑받는 공직풍토 조성 총력

부안군, 관광숙박시설 합동점검

부안군은 9일 전북도 및 부안소방서와 합동으로 관내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겨울철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관내 총 11개의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펜션업 5개소, 한옥체험업 1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가스안전 등 겨울철 안전 취약 항목과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연권 문화관광과장은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머물다 갈 수 있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예방 당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재련)는 겨울철 과수 전정 시 가위, 톱 등 기구 소독으로 검역병(과수화상병)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은 과수 중 사과, 배나무 등 인과류(仁果類)에 걸리는 세균성병으로 전정가위나 톱 등으로 전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수원에서 전정 전에 꼭 도구를 소독해야 한다.

소독요령은 70% 알콜 또는 락스 20배(물 1리터+락스50cc) 희석액에 전정도구를 3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살포하면 된다. 과수원을 옮겨 전정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하며, 전정 시 지주 소독하면 더욱 좋다.

신규로 묘목을 식재 할 때에도 과수화상병으로 부터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해야 하며, 과수화상병이 구멍뚫린 지역을 다녀 올 때에는 신발 등을 꼭 소독하여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병으로 사과, 배 등 장미과(薔薇科) 기주식물(寄主植物)의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의 조직이 검게 마르고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되며, 발생 시 과수원을 폐원해야 하는 등 큰 피해를 낼 수 있는 병이다. 2015년도부터 안성, 천안에서 발생했으며, 작년에는 안성 등 6개 시군 48.6ha에 발생을 했고, 발생된 포장은 주변으로의 감염을 막기 위해 반경100m내의 사과, 배 등 기주식물(寄主植物)을 모두 매몰처리 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 1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2월중으로 정읍에서 사과, 배 재배농가에 게 방제약제를 보급하고, 3월중에 살포하여 과수화상병으로 부터 안전한 정읍으로 지켜나가기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공직기강 확립·3대 비위 근절위한 확대간부회의 가져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자 3대 비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일부 공직자가 본분을 망각하고 음주운전, 성추행, 금품수수 등 3대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 발생되어 공무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신뢰행정 실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헤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강력한 혁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최근 사회적으로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금품 및 향응수수 성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9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김인태 부시장 주재로 국장 및 각 실과소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 및 3대 비위 근절을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인성, 청렴교육 강화와 3대 비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 및 인사상 페널티 부여, 복리후생제도 축소, 사회봉사활동 명령, 공직비위 징계현황 공개 등 직접적인 제재방안과 상급자 연대책임제 강화에 대해 전달했다.

시는 비위행위 예방과 공직자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공직기강 확립 교육과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집합교육 시 비위예방 청렴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공직자 신규채용 시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비위발생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3대 비위행위 적발 시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처분을 최고수위로 적용할 방침이며, 징계 처분자에 대해 징계수위에 따라 2~6개월까지 재할용선발장 등 현상근무제를 실시한다. 연대책임 강화를 위해 부서 내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부서장의 문책도 실시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본격 시동

고창 원예산업발전협, 수수료 1% 인하결정... 유통비용 감소 기대

고창군 농민들이 지역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작물 출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이 상당부분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고창군은 최근 원예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농산물 유통사업 활성화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농협과 영농법인으로 계통출하 하는 통합마케팅 수수료율을 2.25%에서 1.25%로 조정했다.

이번 농산물 출하수수료 조정은 침체됐던 농산물 통합마케팅에 다시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군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통합마케팅 활성화'는 공동출하 조직 확대와 시장교섭력을 확보해 지역 농산물의 재가를 받아 주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말 농협간 고창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유통창구 일원화에 합의했다. 이어 본격적인 통합마케팅 시동을 걸기 위한 후속 조치로 '원예산업발전협의회'에서 출하수수료를 조정하게 됐다.

군은 향후 조직화 교육과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산지 생산 농산물을 일원화된 창구로 유통시켜 농업인 소득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생명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다"며 "이번 수수료 인하로 고창군의 명품농산물을 일원화된 유통창구로 집중 출하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적극 추진

정읍시(시장 유진섭)에서는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연중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무료 재발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 면제)규정에 의하면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수수료(5,000원)가 면제대상이나 그간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이 제도를 아는 시민이 많지 않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1988년부터 발급한 종이 코팅 주민등록증은 1999년도부터 카드형으로 변경되어 발급되었으며, 2006년 11월 1일부터 워터마크 방지를 위한 형광인쇄 기술을 추가하여 발급되고 있다.

카드형으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코팅이 벗겨져 사진이나 글자가 흐려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워터마크 방지 기능이 없는 오래된 카드는 변조된 의도도 인해 신분확인이 더욱 곤란하여 민원서류 발급에 애로 사항이 많이 따른다.

한 민원인은 "요즘은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신분증이 많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등록증에 대한 관리와 관심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며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처음 인정받은 것을 기념하고 20여년 접의 본인을 추억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교체를 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고 밝히며 주민등록증이 신분증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당부했다.

아울러 본인의 고의와 과실 없이 시간경과 등에 의한 훼손된 주민등록증도 무료 재발급 대상이며, 반드시 기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구 주민등록증과 사진을 가지는 변조된 의도도 인해 신분확인이 더욱 곤란하여 민원서류 발급에 애로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설맞이 농특산물 홍보·판로확대 집중

부안군이 2019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설맞이 부안군 농특산물 홍보용 리플릿 5000여부를 제작해 자매결연도시와 향우회, 유관 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 실과소와 읍면에도 리플릿을 배부하고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서울 관악구청, 양천구청, 구로구청, 동대문구청 등 대도시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에 참여해 도시민들에게 부안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부안농산물 소싱몰 부안드림몰 운영 활성화, 각종 전시·박람회 참가 등 지역 농특산물 판로확대에도 적극 대응기로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속가능한 농촌, 함께하는 농촌 만들어요

정읍시·전북과학대학교, 농촌재능나눔사업 공모 6년 연속 선정

정읍시(시장 유진섭)와 전북과학대학교(총장 황인창)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9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공모에 6년 연속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농촌재능나눔사업은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시는 이번 선정으로 국비 등 총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과학대학교는 지난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사업을 6년째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자체인 정읍시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생들의 전문지식과 재능을 농촌마을에 나누는 방식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농촌, 함께하는 농촌모델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농촌재능나눔사업은 전북과학대학교 11개학과와 교직원봉



정읍시와 전북과학대학교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9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공모에 6년 연속 선정됐다.

사대가 연계해 △건강보존 봉사활동 △재능나눔 대축제 △찾아가는 이머용 사업 △웃음치료 및 행복사진 △도자기 문패 제작 등 총 12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황인창 총장은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지역 농촌주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촌, 함께하는 농촌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지속적인 프로그램개발과 재능나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 SET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어울려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 SET 3세 | 750ml 1ea/12% | GIF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 SET 5세 | 375ml 5ea/13% | GIF SET 6세 | 500ml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 SET 7세 | 375ml 2ea/13%

부안강산뽕주
GIF SET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